

[종합·해설]

지역 의원 소통 부족… 지역 현안 못 챙겼다

지난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가 7일을 기점으로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조·재선들이 의욕을 보인 반면, 다선 의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대 국회 100일’ 광주·전남 의원 의정활동 평가

초·재선 ‘의욕’… 다선 의원 기대 못미쳐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원활한 정치적 소통보다는 각각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좌우우연하고 있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최석 민심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7일 서울 영등포시장을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부인 최혜경씨가 과일가게에서 향사과를 고르고 있다.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의욕 넘치는 초·재선=광주·전남 지역 초재선 의원들은 넘치는 의욕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용섭, 조영택 의원은 각각 당내 제4·제5경조위원장과, 제6경조위원장은 맡은 것은 물론 예결위원으로 지명되는 등 나름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농수산식품 위에 배정된 김영록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569억원에 이르는 수산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초선답지 않은 내용을 보이고 있다.

재선의 서갑원 의원과 유효근 의원도 각각 원내수석부대표와 제1경조위원장에 맡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 역량을 기워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가 꼬일 때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 주목받고 있으며 등 최인기 의원도 가족법 특별 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승고르기 나선 다선 그룹=우선 3선의 유선호, 이나연 의원은 각각 법사위원장과 농수산식품위원회장을 맡으면서 예전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또한 당 대표 경선 및 최고위원 경선에 불참한 김효석 의원도 민주당정책연구장을 맡으며 후일을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5선의 박상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별다른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현안해결 등 향후과제=광주지역 의원들은 매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원활한 소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 의원들은 각각 악진에 나서며 별다른 소통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 간의 소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예산 국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 철도 조기 완공,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 확보, J-프로젝트, F-1 특별법 등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정치권은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개인적 역량은 있지만 좌우면 속에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정치적 이슈를 이끌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의원 법안 발의 봇물

유효근 8개 최다… 이용섭·이낙연 7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발의의 실적이 공천 자대의 하나로 적용된 데다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으로 흥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유효근 의원(광양시)으로 8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사법법 개정안 등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서도 법사위 간사를 맡은 경험이 십분 발휘됐다는 평이다.

뒤를 이어 이용섭 의원(광산구)과 이낙연 의원(장성·영광·함평)이 각각 7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 유예 법안부터 도록 특별법, 정유사별 판매 거래 공개 법안, 저소득층 지원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농림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법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 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광산갑)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선 의원으로서의 관록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무소속의 이운석 의원(무안·신안)도 농산어촌 교육발전법, 정부조직법, 노인복지법 등 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 초선의원으로서의 의욕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의 박상천 의원(고흥·보성)과 김영진 의원(서구을)은 단 1 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법안 발의가 공천의 기준으로 제시됨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룬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짜깁기, 베끼기에도 나서고 있어 법안 발의보다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숫자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추석 민심잡기 바쁜 행보

재래시장 등 돌며 물가 점검·정책 홍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눈 앞에 두여야가 본격적인 ‘민심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생활공감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추석 기간 동안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연휴 기간 지역구를 돌며 소득 세 환급금 찾아주기, 빈곤층 아동 양육비 지원,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세권매입 의무제도 폐지 등 생활공감정책을 홍보하고 유가환급금 폐지와 운송업계 체질개선 등 고유가 대책을 전파하도록 했다.

또 주요 정책을 담은 추석용 특별 당보 25만부를 당원들에게 배포, 홍보에 활용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는 별도로 박희태 대표와 최고 위원회 등 당 지도부는 8일 강북지역 시

장을 방문해 추석 물가를 살피고 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또 군부대도 방문, 국군장병을 위로한다. 당 지도부가 지난 여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국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직전 강원 지역 민생밥방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고 강한 야당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정책홍보를 3만여부를 귀향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정책홍보물에는 정부의 감세안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고 강한 야당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 설명 자료를 배포, 연휴 기간 지역구에서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영등포 종양장을 방문, 직접 차례용품을 구입하는 등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이밖에 소상인과의 토론회, 군부대 위로 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희창 총재도 일찌감치 추석 민심잡기 행보에 들어갔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독거노인들을,

3일에는 군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7

일에는 대전시 중구 재래시장 방문을 비롯 이번 추석 명절을 활용, 선진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약자와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농어촌 지역 19곳

연내 ‘작은 도서관’ 설립

전남지역 농어촌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창고’ 역할을 하게 될 마을 단위 ‘작은도서관’이 올해 말까지 모두 19곳에 들어선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에 도내 9곳이 선정된데 이어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 10곳 등 모두 19곳에 도서관이 세워진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소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9곳에서 도서관 조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7월 전남도와 도교육청,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을 위한 NHN, 광주일보 등이 협약을 맺고 도내 농어촌지역 10곳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마

국회 도서관장

유종필씨 내정

분용주 국회도서관장의 뒤를 이을 차기 국회도서관장직에 민주당 유종필(사진) 전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직 의원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고 당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한 인사에 방점을 두고 인선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은 애당이 차지할 수 있는 국회직 중 최고위직으로, 국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늘지만 통상 국회의장과 임기(2년)를 같이 해 온 게 관례이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돼 있어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지식 정보센터 기능을 할 도서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서관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해양조

www.bohae.co.kr
고객문의실 (044) 959-1111

보해는 국내 최대 복분자 수매업체입니다



전설의 힘으로!
1등의 힘으로!

대한민국 NO.1 복분자, 보해 복분자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복분자
보해 복분자

기호고 복분자 향기 스무 살의 복분자
보해 슬림

기호고, 수줍은 자녀의
복분자 차기명물

기호자선 간보리로
복분자원 크리미

감자와 함께하는 깊은 맛과 향기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